“스님들 공부 잘 돼야 바른 법 돌아와”



후원회는 매월 첫주 토요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2018년 8월 후원회는 강원에 노트북을 전달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

B1면에서 계속

해인사 강원 후원회 활동

“강원 스님들 환경 열악해,
재가자로서 마음 무거워”
후원금 1억원 적립
학사과정, 노트북 등 지원
전국 각지에서 회원 가입
〈금강경〉 사경집 제작 보급

법성게는 〈화엄경〉의 내용을 7언 30구 210자로 담은 게송으로 화엄의 세상을 압축한 것이다. 해인사 구광루에서 학인 스님들의 가사와 닮은 조끼를 입은 그들은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모인 화엄행자처럼 보인다. 그들의 발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승보(僧寶)를 호위하는 호법신장이 되겠다는 원력이다.

“뛰어난 법문을 들을 때 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더 많이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의 낙처(落處)를 알라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삶을 이끄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삶을 지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자다워지고 향기로운 삶이 됩니다. 가르침을 얻고 법의 가치를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후원회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너무나 부족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법회 대중 중에서 후원회 대중을 만났다. 이순복(63) 불자는 법문을 통해 얻은 삶의 지침이 후원회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됐다고 했다. 오직 부처님의 법을 사랑해서 지키고 모든 이들이 함께 듣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만들어진 모습이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보니 너무나 좋은데 재가불자인 제가 법을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 법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있으려면 스님들의 공부가 중요한데 학인 스님들의 열악한 환경을 듣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스님들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법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현철 회장과 배명숙 홍보팀장 부부.

배 팀장이 말했다. 후원회를 설립하고 이끌어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이다. 오직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이 이 땅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에서 비롯됐다.

진리의 법음을 울려주시기를

새벽 4시, 가야산에 법고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원회 도반들이 법고 앞으로 모여들었다. 장엄하게 퍼져가는 법고소리를 들으며 대중은 마음을 다시 단단히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그 옛날의 수닷타를 떠올리고 있었다.

“강원 스님들을 후원하는 불사는 결국 저희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옛날 수닷타처럼 부처님의 법을 받들고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제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대신해 바른 법을 많은 중생들에게 전달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모두가 모인 것입니다.”

배 팀장은 우리 불교의 미래를 위한,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교육’ 이라고 했다. 후원회는 불법을 전하기 위해 매월 정기 법회도 쉼 없이 열고 있다. 법회를 통해 법을 들어야 마음을 내고 공덕을 쌓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법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 7월 정기 법회에는 처음 참여한 사람만 21명이며 기존 회원까지 포함하면 80여 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바로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부터 대구,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사연도 제각각이다. 여자 친구의 부모님을 따라 부처님께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있다.

정휘철(30) 씨와 신예지(25) 씨는 “부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찾아왔는데 조용한 사찰에서 힐링도 하게 되고 법문도 들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온 한 불자는 “오늘 처음 도반을 따라 왔는데 멈추지 말고 이렇게 법석을 정기적으로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들은 해인사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며 부처님의 법을 듣고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정기법회는 특강과 참선, 예불, 108배, 암자 순례, 마애불 산행, 차담 등으로 진행된다.

후원회는 얼마 전부터 〈금강경〉 사경집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학인 스님뿐 아니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을 읽고 공부해 더욱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최 회장에게 앞으로 계획을 물었다. 최 회장은 “후원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의미를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최 회장은 “학인 스님들을 위한 후원회가 필요 없을 만큼 든든한 교육 불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법보시가 최고라고 합니다. 왜 법보시가 최고일까요? 온 우주가 마음에서 나고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법을 통해 마음을 바로 압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일러줍니다. 법을 듣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법고 소리가 그치자 해인사를 둘러싸고 있는 가야산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햇빛은 산자락부터 천천히 내려오더니 홍류동 계곡 구석까지 어두운 곳을 찾아 빠짐없이 햇살을 쏟아냈다. 법고를 두드리던 학인 스님들이 범종루에서 차례로 내려왔다. 후원회 회원들은 스님을 바라보며 합장 기원했다.

“힘차게 팔을 휘둘러 두드리던 법고의 울림으로 새벽 여명을 불러왔듯 무명의 세계에 진리의 법음을 내려주시기를”

그 옛날 수닷타는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공양한 후에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공양했으며, 재물을 다 소진한 후에는 죽을 끓여 보시하는 등 승보공양을 이어갔다. 또 며느리로 들어온 수자타가 교만하여 남편과 시부모를 여법하게 섬기지 않고 아내로서의 예절과 덕을 갖추지 못하자 부처님께 법을 청해 가르쳤다. 그 가르침은 부처님이 어진 아내로서의 길을 설한 대표적인 설법으로 남았다. 결국 승보를 공양하는 일은 공양하는 자신의 공덕으로 돌아온다. 법회를 마친 후원회 회원들은 “이제 막 출가하여 부처님 공부에 뜻을 낸 스님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님들을 후원하는 후원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며 불자들에게 서원과 권선을 부탁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는?

해인사 강원 57기 스님들이 2015년 시작했다. 이후 재가자들의 발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갔고 현재 밴드 정기회원만 743명이다. 정기 후원을 통해 학인 스님들의 학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 후원금으로 노트북 지원, 성지순례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후원해 재가자 승보공양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학인 스님들의 후원 외에도 정기법회를 열어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강경〉 사경집을 제작 배포해 법공양에도 앞장서고 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